

## 경제산업성, 산업재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표

日정부는 2월 10일, 국내의 산업재편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M&A 수속 간소화, 공정거래 위원회 심사 신속화 등을 기동으로 한 산업활력재생법 개정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우리산업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日정부는 2월 10일, 국내의 산업재편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M&A수속 간소화,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 신속화 등을 기동으로 한 산업활력 재생법개정안을 내각회의 결정.
- 주식의 공개 매입(TOB)로 100% 자회사화를 실행할 때, 현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개정법(안)에서는 주주의 90%이상이 TOB에 찬성하면 나머지 주식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기도 했음
- 주주 총회 사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수속 기간을 3개월정도 단축할 수 있음
- 또,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을 통해, 5~10년간, 저금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신설함.
- 업계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독점금지법에 근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법률개정 배경·목적

-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격화나 「고품질·단품 판매」에서 「기기와 서비스 일체판매」 등, 수요변화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투자규모 확보」 및 「시스템 판매」 등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개별 대책의 개요와 효과>

#### ■ 조직재편지원(1) : 주요 대신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 ▶ 내용

- 사업소관 대신에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강화

##### ▶ 효과

- 글로벌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산업재편이 원활하게 진행됨

#### ■ 조직재편지원(2) : 조직재편 수속 간소화

##### ▶ 내용

- 90%이상의 주주가 TOB에 응하면, 나머지의 주식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기도 했음

##### ▶ 효과

- 조직재편 수속이 다양화, 신속화되어 적극적인 재편이 촉진
- 완전 자회사화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안해도 되고, 수속이 3개월 정도 단축

#### ■ 조직재편지원(3) : 장기 자금조달 지원

##### ▶ 내용

-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산업재편 등을 실시하기 위해 기업에게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저금리로 2단계 융자를 실시함

##### ▶ 효과

- 재편에서 사업대편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자금수요가 발생.

\* 장기자금 1000억 엔 정도 공급

## □ 시사점

- 첫째,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과 스미토모 금속공업(住友金屬工業)의 합병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다른 산업에 확산할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이 법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일본 산업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 탓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의 필요
- 셋째, 일본기업의 산업재편이 가속화되면, 산업구조가 비슷한 우리나라로서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쟁의 길”과 한일 산업 재편을 통한 “한일산업 상생의 길”을 기업별, 사업별로 점검하면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경제산업성 홈페이지(2011.2.10),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力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方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